

광주·전남 창업기업 25%만 5년이상 생존

진입 쉬운 도소매·음식점업 포화...창업-폐업 악순환

고성장 기업 극소수...제조업 감소로 기업 생태계 악화

장기불황과 기업 구조조정 여파속에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 창업 기업이 늘고 있지만 신생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1년을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등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전반적인 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 지역 활동기업(매출이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수는 32만648개로 전년보다 0.2%(611개)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활동기업수가 555만3564개로 전년보다 0.1%(5203개) 감소하고, 신생기업도 전년보다 3.5%(2만9587개)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광주 지역 활동기업에서 가장 많은 업

종은 도·소매업으로 전체의 27.5%(3만 9794개)를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업 16.2%(2만3366개), 숙박·음식점업 15.0%(2만1736개), 운수업 8.2%(1만1905개), 건설업 7.7%(1만1188개), 제조업 6.6%(9565개), 개인서비스업 5.8%(832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전체의 26.3%(4만6259개)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 17.7%(3만 1193개), 운수업 12.4%(2만1796개), 부동산·임대업 10.7%(1만8883개), 건설업 10.4%(1만8309개), 제조업 7.0%(1만2255개), 개인서비스업 5.3%(9406개) 순이었다.

새로 창업한 신생기업은 광주 2만3653개와 전남(2만6138개)을 포함해 5만개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전년도에 비해 900여 개가 증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신생기업 못지 않게 소멸기업도 많다는 것이다. 진입이 쉬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특정 분야에 쏠리면서 공급포화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2014년 폐업했거나 활동하지 않은 소멸기업은 광주 2만2533개를 비롯해 4만4650개나 됐다.

또 매년 5만개 가깝게 창업하지만 5년간 살아남는 기업은 평균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광주·전남 지역 2014년 활동기업의 1년 생존율은 각각 60%대(광주 60.4%, 전남 61.0%)로 10곳 가운데 4곳은 생김지 1년만에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생존률은 시간이 갈수록 더 떨어져 2년 생존율 40%대(44.8, 44.7%), 3년 생존율 30%대(35.4%, 37.0%), 4년 생존율 30~20%대(28.4%, 30.3%), 5년 생존율은 20%대(23.4%, 26.5%)로 창업 후 5년

동안 살아남는 기업은 4개 가운데 1개꼴에 그쳤다.

문제는 더 있다.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고성장기업과 가젤형(Gazelle·빨리 달리면서 높이 뛸 수 있는 영양류) 기업(고성장하면서 설립한지 5년 이내인 기업)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의 고성장기업은 각각 93개에서 76개, 104개에서 89개로 줄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기업으로 성장세가 뚜렷한 가젤형 기업 역시 전년도보다 각각 2개(11.1%)와 10개(28.6%) 줄었다.

이와관련 박시현 광주상의 수석연구원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중심의 창업과 폐업 악순환도 문제지만 내수시장 침체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쇠퇴로 지역 경제 생태계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7.75 (+1.85)	금리 (국고채 3년) 1.67% (0.00)
↓ 코스닥 615.16 (-4.59)	↓ 환율 (USD) 1201.40원 (-1.60)

설 선물 세트 돼지고기 첫 등장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백화점 중저가 품목 대폭 늘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백화점 선물세트도 돼지고기까지 등장했다.

내년 설(1월 28일)은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겹살 1.0kg과 목심 0.5kg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4만9000 원)는 돈육 부위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 부위를 엄선해 제작했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선보이게 됐다"며 "청탁금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객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5만 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으며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 22일까지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처음 선보인 5만 원 이하 축산 선물세트를 비롯해 민어굴비 5마리로 구성된 '신진 반건조 실속 민어굴비세트'(4만9천900원), 한라봉과 감귤 등을 혼합한 '제주 선물세트'(4만 9000 원) 등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현대백화점도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내년 설을 앞두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45년 전통의 연탄 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쌍다리 돼지 불고기 세트'(6만 원)는 저온 숙성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라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간고등어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국내산 고등어를 손질해 천일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 세트'(5만 원)와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간한 '안동 간고등어'(5만 원) 등 두 종류다.

고등안 백화점 명절 수산 선물세트라고 하면 보통 굴비, 갈치, 옥돔, 전복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설에는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처음으로 저렴한 고등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새주 병뚜껑만큼 쌓이는 이웃사랑 보해양조, 개당 100원씩 적립해 기부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23일 저녁 개구우면 박나래와 함께 '앞새주 사랑의 병뚜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해양조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참여방식은 광주 상무지구와 수완지구 상권 중심에 모금함을 설치, 앞새주를 마신 후에 병뚜껑을 반납하여 1개당 100원씩 적립돼 광주, 전남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기간은 2017년 1월 2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앞새주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늘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소비자께 감사함을 표함으로써 훈훈한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앞새주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



는 목표출신 개구우면 박나래도 동참해 소비자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외에도 크리스마스 캐럴송인 '울면 안돼'를 개사한 '말뭉치 안돼' 등을 부르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책임 있는 음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전개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경제 불황과 사회적 이슈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민들에게 내년을 준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준비했다"며, "지역민의 애환을 달래왔던 앞새주와 유쾌하고 긍정적인 매력에 돋보이는 박나래와 함께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기아차 올 49만9천대 생산...전년보다 6.4% 감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 생산량 53만3483대(내수 12만4946대·수출 40만8537대)보다 6.5% 감소한 49만9000대(내수 약 11만4000대·수출 약 38만5000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한해 최대 생산능력은 62만대다.

지난해보다 차량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기아차 노조의 잦은 파업에 따라 생산성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내수 시장 위축과 수출의 주력 수출시장인 북미 등 수출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총 44만3000여대(내수 10만4000여대·수출 33만8000여대)를 생산한 가운데 차종별 생산량은 쏘울(전기차 포함) 15만1000여대(내수 2200여대·수출 14만9000여대), 스포티지 18만 2000여대(내수 4만5000여대·수출 13만 7000여대), 봉고트럭 8만여대(내수 5만 1000여대·수출 2만9000여대) 등이다.

최근 환율 상승(원화까지 하락)으로 우리나라 수출 효과 품목 중 하나인 차량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량 증가가 주목된다.

내년에도 환율상승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아차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면 수출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 쏘울 등을 중심으로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량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도 보인다. /김대성기자bigkim@

세일골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인재 양성 최선"

김헌태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지역민에 사랑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상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6일자로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취임 한 김헌태(55) 본부장은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우수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헌태 본부장은 이를 위해 "환경을 방문해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투자기업들이 인력확보에 어려

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전기공학과와 전남대대학원 전기공학과(박사)를 졸업했으며, 본사 기획처 기술사업팀장, 본사 기술기획처 기술전략팀장, 안전보안처 장 등을 역임했다.

전기안전 관련 정책 개발과 전력시설 정보보안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리더십을 인정 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화제의 상가 분양] 적은 투자로 매달 따박 따박 월 임대료 받으세요~

광주 투자자들 선호하는 Home plus 와 CGV* 1층상가 12월 오픈 예정!

1층 수평형 Mall+56% 테라스 설계/고객순환형 동선설계+일반상가 보다 높은 6m 층고

▶예상 수익률 표	(VAT 미포함) 단위 : 원	
계약면적 21.83 (구)평	계약면적 25.47 (구)평	계약면적 35.64 (구)평
실투자금 207,400,000	실투자금 273,000,000	실투자금 298,800,000
보증금 20,000,000	보증금 30,000,000	보증금 30,000,000
월 임대료 1,800,000	월 임대료 2,400,000	월 임대료 2,600,000
년 임대료 21,600,000	년 임대료 28,800,000	년 임대료 31,200,000
대출시 연수익 16,294,000	대출시 연수익 21,730,000	대출시 연수익 23,528,000
수익률(예상) 7.9%	수익률(예상) 8.0%	수익률(예상) 7.9%

※대출 40%, 금리 3.5% 기준

분양문의 062)412-2237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4층: 치과, 이비인후과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2층: 내과, 검진센터 5층: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3층: 안과, 피부·비뇨기과 6층: 물리치료실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분양문의

(063)653-7806 010-4922-3317